

다시 찾은 돈

한 도시에 허름한 옷차림의 장사꾼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장사꾼은 낡은 가방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가방에는 알뜰살뜰 모은 돈뭉치가 들어 있었다.

거리 모퉁이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는 장사꾼은 무릎을 탁 쳤다. 그것은 할인 판매를 알리는 현수막이었다.

“몽땅 세일! ○일부터 ○○일까지.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장사꾼은 고민이었다. 몽땅 세일 기간이 되려면 아직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위험해. 날치기라도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한단 말인가.’

장사꾼은 복잡한 시내를 빠져 나와 교외로 나왔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보았을 뿐,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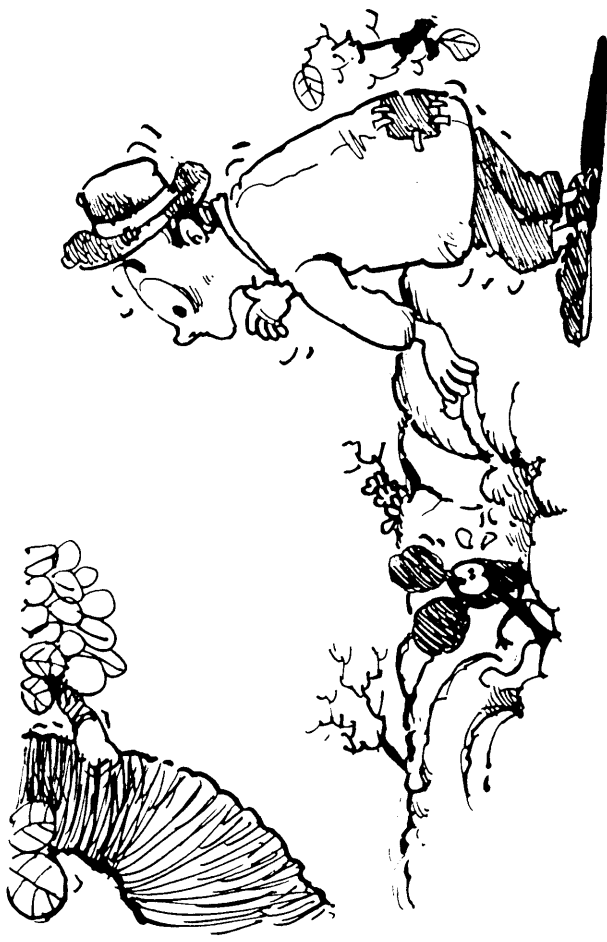
‘여기라면 안심맞춤이야. 참새가 돈을 탐낼 리는 결코 없으니까…….’

장사꾼은 땅을 깊이 판 후 돈 가방을 묻었다.

드디어 몽땅 세일이 열리는 날이 왔다. 장사꾼은 돈을 묻은 곳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묻어 둔 돈 가방이 온데간데없었다.

‘원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담!’



장사꾼은 다시 한 번 찬찬히 주위를 살폈다. 저 멀리에 오두막집이 보였다. 돈을 파문던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집이었다.

장사꾼은 오두막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주인장, 계시오?”

“무슨 불일이오? 아무튼 들어오시구려.”

장사꾼은 주인의 얼굴을 모르는 척 세심하게 살폈다. 하지만 주인의 표정만 보고는 진실을 알 길이 없었다.

“저는 시골 장터를 오가는 장돌뱅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감님의 지혜를 빌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시 가까이에서 사는 어른이시니 아무래도 이 촌뜨기와는 다르실 것 같아서…….”

그러자 주인 영감은 얼른 대꾸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서 말씀해 보시구려.”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오백만 원이 든 돈 가방과 이백만 원이 든 돈 가방을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백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땅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저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백만 원이 든 돈 가방은 숨겨 놓았지만 오백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질 않습니다. 그 돈 가방도 이백만 원을 묻은 그곳에 그냥 함께 묻어야 할지, 아니면 민을 만 한 누군가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나을지……?”

그러자 주인 영감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러고는 곧 묘책이 떠올랐다는 듯이 무릎을 쳤다.

“사람이란 민을 수 없는 동물이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철면피가 되는 법이라오. 그러니 내가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맡기느니보다는 이백만 원을 묻은 곳에 함께 묻어 두겠소.”

“감사합니다, 영감님. 정말 현명하신 가르침입니다.”

장사꾼은 곧 그 집을 나왔다. 그러고는 돈 가방을 묻어 둔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

아니나 다를까, 욕심쟁이 영감은 얼마가 지나자 집을 빠져 나오더니 땅을 파헤치고 돈 가방을 다시 묻는 것이었다. 오백만 원까지도 골격 삼키겠다는 심보가 분명했다.

영감이 돈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묻고 돌아가자 장사꾼은 재빨리 땅을 파헤치고 돈 가방을 다시 찾았다.

그러고는 영감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영감,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란 철면피가 되는 법 이라오!”